

刊經都監 重修本에 대한 誤解

The Misunderstanding about Repairing Edition Printed in Kangyung-dogam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중수본 현황 |
| 2. 重修의 의미 | 3.2 중수본의 보판 사실 |
| 2.1 사전적 정의 | 4. 결 언 |
| 2.2 학계의 이해 | <참고문헌> |
| 3. 간경도감 중수본의 검토 | |

<초 록>

이 연구는 간경도감 중수본이 후인본인가 아니면 번각본인가를 관련 연구와 실물자료를 분석해서 그 사실을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수본은 원간본의 번각이 아닌 후인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견해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며, 이후 조명기 선생에 의해 보각 또는 보판 중수한 사실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 견해는 천혜봉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전혀 다른 번각본설이 제시된 이후 서지학계에 정설처럼 자리하게 되어 오해를 낳고 있다.

要語: 간경도감, 중수본, 후인본, 조명기, 중수, 천혜봉, 번각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 repairing editions printed in Kangyung-dogam is the re-engraving edition or the reprinting edition through analyzing preceding studies and physical data. In conclus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repairing editions are reprinting edition, not the re-engraving edition of the original. This view was raised by Japanese scholar during Japanese occupation. And later, Dr. Cho Myung Gi explained the fact that the repairing editions are replaced woodcut of original by supplement some characters or whole woodblock. Currently, however, this view was unaccepted by Dr. Chon Hye Bong. After a completely different basic theory on re-engraving edition was proposed it has become widely held in the academic world of a bibliography, leading to misunderstanding.

Key words: Kangyung-dogam(刊經都監), repairing edition(重修本), reprinting edition(後印本),
Cho Myung Gi, Chon Hye Bong, repairing woodcut(重修), re-engraving edition(飜刻本)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8년 2월 18일 최초심사일: 2018년 3월 6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6일
서지학연구, 제73집, 83-98,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83]

1. 서 언

역대 우리나라에서 서지학적 연구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고려 10세기 말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한 『교장총록』(원명: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찬과 그 간행 사업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의천에 의한 章疏의 수집, 목록의 편찬, 장소의 校勘, 그리고 간행에 이르는 일련의 총체적 과정이 바로 서지학의 주요 학문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천의 교장 편찬 및 조판 사업은 그 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세계 불교학의 학문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書誌 및 原文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천 당대에 간행된 원간본은 일본에 2종과 우리나라에 1종¹⁾ 등 모두 3종만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자들 사이에 ‘完刊說’ 혹은 ‘未完刊說’로 상반된 견해가 팽배한 실정이다. 이처럼 교장 전체 1010종 가운데 잔존본이 단지 3종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미완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 세조 연간에 刊經都監에서 重修 또는 雕造한 판본이 대략 50 여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완간설이 점차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교장본 연구에는 조선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장소류의 자료적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간경도감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이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존하는 간경도감본에는 ‘重修’ 또는 ‘雕造’라는 용어가 간기에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조’라는 용어는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성기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중수’라는 용어는 조선의 간경도감 중수본의 간기에서 주로 표시되고 있다. 흔히 중수라는 용어는 건조물을 큰 규모로 改修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근래 이 중수라는 개념을 ‘飜刻’ 또는 ‘重刻’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한편 필자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간행된 불교전적을 대상으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장흥 보림사를 비롯하여 영광 불갑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 소장된 불서와 불북에서 수습한 복장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2년도부터 순천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불전을 조사하여 그 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분사도감본과 유일본 등을 새로 발굴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간경도감 교장본 11종을 추가로 수습하여 이를 국제학술대회와 불서전시회를 개최하여 널리 소개한 바 있었다.²⁾

1) 국내전본 원간본 1종은 보물 890호로 지정된 『注仁王護國般若經』으로 본래 조명이 舊藏이었으나 현재 아단문고에 수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의 板首題 아래에 ‘存植’과 ‘有立’ 등 11인의 각수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存植은 1240년 崔怡 발원 『妙法蓮華經』의 『要解序』 아래에도 새겨져 있고, 또한 동시대에 개관된 『圓覺類解』와 『弘贊法華傳』, 『合部金光明經』 등에도 각수로 기입되어 있으며, 그리고 1238년에서 1243년 사이에 재조대장경 5종을 판각한 刻手로 알려져 있다. 또한 有立 역시 再雕本을 1238년에서 1244년 사이에 7종을 판각했던 각수로 확인된다(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경인문화사, 2006), 246-249). 이외에도 ‘眞甫’, ‘孝兼’ 등 여러 명의 유명 각수명이 재조본과 중복되는 사실로 보아 이 책은 의천 당대에 판각된 原刻本으로 볼 수 없으며, 고려 고종 연간 재조본의 雕板 말기인 1240년대 후반 무렵에 重彫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무렵이 抗蒙期이었으므로 護國과 관련된 불서류가 다수 개판되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서 간경도감 중수본이 과연 ‘飜刻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추가로 수습한 11종과 그 이전에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5종을 포함하고, 여기에 일제강점기 1938년에 조선고적연구회에서 조사하여 미간원고본 보고서 형태로 작성한 17종과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장소류를 대상으로 서지학적 특징을 검토해 왔다.

그 동안 간경도감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주로 도감의 설치와 기능에 중점을 둔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간행본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江田俊雄 등 일본인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수행한 이후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간경도감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重修本의 성격에 대해서 종래의 여러 선행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한편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중수본을 제시하고 중수 사실을 고증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 重修의 의미

2.1 사전적 정의

중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건조물에 흔히 쓰이는 말이나, 간혹 문헌에 있어서는 해당 문헌의 내용을 보완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의학서로 을해자로 간행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역서인 『重修大明曆』, 그리고 불교서적인 『重修人天眼目後序』 등의 사례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수가 서적의 간행기록에 사용된 경우는 간경도감에서 사용된 사례가 유일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사전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참고하였던 이희승 편저인 『국어대사전』에는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침(유의어 改修)”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한국고전용어사전』에도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침”으로 그대로 전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름이 있는 대부분 불교대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용례가 가장 풍부한 한자대사전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 발행한 『漢韓大辭典』을 찾아보니 세 가지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이 대사전에는 첫째 후한 봉급, 둘째 서적을 다시 수정하거나 편찬함,

2) 이때 사천왕상에서 수습한 교장본과 송광사 소장 유일본 등이 필자가 기획 간행한 전시도록에 수록되어 있다(송일기, 『順天 松廣寺 聖寶博物館 佛書展示 圖錄』(태학사, 2004), 4).

셋째 낡은 건축물을 다시 고침 등으로 해설되어 앞의 사전에 비해서 상세한 전거와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 출처가 미상이나 유사 용어를 비교적 자세하게 해설한 전문가의 글이 보이고 있어 이를 그대로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중수(重修)는 큰 규모의 수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의 기와나 서까래의 교체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들보, 도리, 기둥, 추녀와 같은 중요한 부재를 교체할 때는, 해체의 범위가 크고 교체되는 부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또는 중요한 수리’라 하여 ‘중수(重修)’라는 표현을 씁니다.”라고 되어 있다.³⁾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중수라는 용어는 주로 건축물을 대규모로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간혹 서적이나 문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한 경우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중수라는 말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원래부터 어떤 건물이나 물건이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 짓거나 만들 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것이다.

3)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용어를 상세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함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전제한다. “중창, 개축, 개건, 중건, 중축, 재건, 중수, 개수, 수축 등의 용어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 건물 수리 기록인 ‘의궤(儀軌)’와 같은 오래된 기록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또한 문화재의 수리와 관련된 위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며 아직 하나로 일치되는 정의는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본 답변에서는 최대한 일반적인 뜻으로 정의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백과사전의 정의와 다를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초창(初創)’은 ‘처음 짓는다’라는 뜻으로, 궁궐이나 사찰, 주택 등을 주어진 땅 위에 땅을 다지고 초석을 놓아 처음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개창(開倉)’으로도 표현됩니다. ‘중창(重創)’은 원래 건물이 있었으며,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자리에 새로 짓게 된 경우입니다. 이 때 이전에 있던 건물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건물군(建物群) 전체 혹은 대부분이 고쳐 지어 지거나 더 지어져 원래의 규모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중건(重建)’은 하나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거나 자연스러운 퇴락과 같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피한 경우, 건물 전체를 해체하여 다시 지으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지은 것을 말합니다. 즉, 수리 전후의 모습이 재료의 교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창(重創)’과 다른 차이입니다. ‘개수(改修)’는 ‘고치고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리를 하게 된 원인이 건축물의 구조적 불안정이나 손상에 원인이 있지 않고, 고쳐 지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고쳐 지으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고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종묘 정전과 영녕전은 조선왕조가 지속될수록 모셔야 할 왕과 왕비의 신위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차례 고쳐 짓습니다. 정전의 경우 원래 7칸이었으나 현재는 19칸이 되었고, 영녕전 역시 원래 6칸이었으나 현재는 16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고쳐서 짓는 것을 ‘개수(改修)’라고 하며, ‘수개(修改)’라고 적기도 하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건(再建)’은 원래 건물이 있었으나 ‘중창’과 같이 건물이나 건물군을 새로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의궤 등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개건(改建)’은 ‘고쳐 짓는다’라는 뜻으로, ‘개수’와 같이 수리 원인이 분명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수리의 폭이 커서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개축(改築)’은 ‘고쳐 쌓는다, 짓는다’라는 뜻으로, ‘개건’과 거의 유사한 뜻입니다. 다만, 용어의 적용 대상이 ‘개건’이 건물을 위주로 사용되는 반면 ‘개축’은 기단, 석축, 성곽, 기초부 등의 수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축(重築)’은 의궤에 자주 등장하지 않으나, ‘중축(增築)’과 같이 기존 건물에 덧붙여 추가 건물을 지어, 건물의 규모를 늘리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의궤 상에는 ‘첨건(添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축(修築)’은 ‘수리하여 짓는다’라는 뜻으로, 민원인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리의 범위를 지나 확장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학계의 이해

간경도감본에 대한 소개는 池內宏과 末松保和의 논고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된 이래 개략적인 연구는 1934년 박봉석 선생을 비롯해서 大屋徳城(1936년) 등의 논문에 보이고 있다. 그 후 해방 이전에 간경도감본에 대한 연구는 1936년 江田俊雄과 神尾弼春(1943년)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에 대해 독립적으로 쓴 논문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주로 속장 또는 교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간헐적으로 간경도감본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선행 논고에서 간경도감 중수본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선행연구자들의 간경도감 중수본에 대한 견해

연대	연구자	견해	출처
1934	朴奉石	- 續藏原板을 補刻	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て, 朝鮮之圖書館 第3卷 第6號(1934), 37
1936	大屋徳城	- 原刻板을 그대로 이용하고 缺板을 補刻	朝鮮海印寺經板考, 東洋學報 15-3(1926), 76-77
1936	江田俊雄	- 高麗板佛典을 重修 - 重修記를 (象嵌) 嵌入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朝鮮之圖書館 5-5(1936, 10), 26
1943	神尾弼春	-	朝鮮國刊經都監の刊行佛典, 東方文化雜考(長春: 滿洲新聞社, 1943)
1959	趙明基	- 홍왕사가 燒失되어 4천여 권의 판목이 거의 전부가 灰燼되었고 그의 일부분이 天順 때까지 남아 있어서 重修한 흔적이 있으나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서울: 東國大學校 白性郁博士頌壽記念事業委員會, 1959), 916
1964	趙明基	- 고려시대 속장 등의 經板의 重修 및 覆刊하고 또 그 후의 章疏의 新雕 등을 逐行하였다. - 이제 續藏의 重修 및 그의 覆刊이라고 認定할만한 것이 약간 있으니 그중에도 重修한 것으로서 原刊記와 重修의 刊記를 並有한 것은 가장 명확하여 秋毫도 疑心이 없다고 하지만은 重修로서 原刊記만 있는 것은 잘못하면 原刊 本物이라고 誤認할 수가 있다. - 결락 파손된 刊板이 잔존한 것을 이용하여 거기에 부족한 판을 增雕 보충하여 1부로 만든 것이니 이 점으로 보면 大安, 壽昌의 原刊의 經板이 天順 때에는 아직 상당히 다수가 잔존하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코 현재에 전하는 것과 같이 소수는 아니었다.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동국문화사, 1964.3), 92-94
1965	千惠鳳	- 義天의 續藏을 翻刻하여 重修한 것 - 翻刻은 精刻인 편이어서 義天의 續藏本을 방불케 한다.	李朝前期 佛書板本에 대하여, 國회도서관 보 2-11(1965.1), 57-66(이 논문은 再考 후 『韓國書誌學研究』에 재수록)
2012	千惠鳳	- 翻刻板, 重刻 또는 後刻板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과주: 범우사, 2012), 223-257

연대	연구자	견해	출처
1989	남권희	- 글자의 자획이 고르지 않으며 굵어지고 둔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 번각본으로 판단되지만 대체로 원각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6(1989), pp.33-67(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160-167 재수록)
2004	강순애	- 교장도감본을 간경도감에서 번각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27집(2004), 27-61
2013	오용섭	- 조선의 간경도감에서 교장들을 각판할 때 원각판을 그대로 이용하고 결본만을 보각한 사실로 보아 당시에 원각판이 제법 잔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大屋徳城은) 세조 때 간행한 교장도감본 교장은 고려 때의 원각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장의 간행방식과 망실, 書誌學研究 54집(2013), 159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상반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봉석 등 일제 강점기 연구자와 조명기 선생까지는 고려시대 판각한 원판을 부분적으로 補刻 혹은 補板해서 다시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비해 천혜봉 선생 이후부터는 이를 飜刻 또는 重刻으로 판단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간경도감 중수본이 原刻板의 後印(刷)本인가 아니면 飜(覆)刻本인가하는 문제로 이는 간행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판본학 상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서지학에서 후인본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원각판에서 다시 인출한 서적을 지칭하는 것이며, 번각본은 원각판이 소실되어서 원각판에서 인출된 서적이 희귀한 경우에 이를 저본으로 전면적으로 새로 판각해서 인출한 판본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후인본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고려 고종 연간에 판각한 ‘八萬大藏經板’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대장경판은 판각 이후 현재까지 해인사 판전에 보존되어 있으면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세조 사이, 그리고 조선 후기 고종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차 後印하여 주요 사찰에 봉안하거나 일본에 賜給해준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분기점은 조명기에서 천혜봉 선생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수본에 대한 견해가 후인본에서 번각본으로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조명기 선생은 1959년 연구에서 몽고의 침입으로 홍왕사가 소실되었을 때 거의 불타버렸으나 그 일부가 세조 때까지 남아 있어서 이를 重修한 것으로 간략하게 밝힌 바 있다. 그 후 1964년 3월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사실을 살펴보면 「제5장 續藏의 刊行」에서 간경도감본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고려시대 속장 등의 經板의 重修 및 覆刊하고 또 그 후의 章疏의 新雕 등을 逐行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重修한 것으로서 原刊記와 重修의 刊記를 並有한 것은 가장 명확하여 秋毫도 疑心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重修로서 原刊記만 있는 것은 잘못하면 原刊本으로 誤認할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원각판이 “天順 때에는 아직 상당히 다수가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코 현재에 전하는 것과 같이 소수는 아니었다”고 그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명기 선생의 단행본이 발간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천혜봉 선생이 1965년 1월에 발간한 『李朝前期 佛書板本』 논문에서 간경도감 중수본에 대해 “義天의 續藏을 翻刻하여 重修한 것”으로 보아 번각본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翻刻은 精刻인 편이어서 義天의 續藏本을 방불케 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⁴⁾ 그 후 말년에 교장연구의 완결판을 2012년에 발행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중수본을 여전히 “翻刻板, 重刻 또는 後刻板”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서지학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후학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래 이에 대한 의문을 표명한 연구자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重修’에 대해 조명기 선생 이전의 선행연구자들은 속장 원각판을 그대로 이용하고 결판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補刻하고 重修記는 象嵌해서 다시 後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천혜봉 선생은 원각본을 다시 翻刻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⁵⁾ 그렇다면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간경도감 중수본의 실물 상에는 과연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간경도감에서 전체를 다시 번각한 판본이라면 부분적인 補刻이나 補板의 현상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간경도감 중수본의 검토

3.1 중수본 현황

종래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은 대략 국역본 9종과 한문본 25-30종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필자는 현재 한문본만 대략 50여 종이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 이 중 상당부분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홍왕사 등에서 판각한 목판을 중수해서 後刷한 것으로 조명기 선생의 敎示가 새삼 떠오른다. 이 중 우선적으로 추호도 의심이 없다는 간경도감본에 重修記가 새겨져 있는 중수본을 파악해 본 결과 <표 2>와 같다.

4) 이 논문은 후에 새로운 자료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보하여 1991년 『季刊書誌學報』(5집)에 재차 투고된 이후 정년논문집에 재 수록되었으나, 그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

5) 그런데 朝鮮古蹟研究會에서 편찬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未刊原稿本, 1938년)의 목차를 보면, 『順天松廣寺藏內典錄(上)』 아래에 ‘高麗板 天順印’으로 구분하고 이하에 8종을 수록하였으며, 中篇에는 ‘天順重刻’으로 구분하고 다음에 6종을 소개하고 있어 당시 고적 조사자도 고려시대에 판각한 原刻板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6) 간경도감 현전본은 김두중(韓國古印刷技術史, 1974. 161-171)과 천혜봉(韓國典籍印刷史, 1990. 142-150)은 각각 25종을 제시하였으며, 남권희(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2002. 152)는 30종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 필자는 지난 2004년에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11종을 새로 수습하여 소개한 바가 있다(송일기, 松廣寺佛書展示圖錄, 2004. 60-79). 여기에 일제 강점기에 朝鮮古蹟研究會에서 편찬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 수록된 자료 중에 10여 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朴鎔辰이 작성한 『高麗 諸宗教藏 章疏目錄 및 現況』(고려대장경연구소, 2013)에서 전모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 重修記가 있는 刊經都監本

번호	書名	撰者	年代	原刊記/重修記	紹介者	所藏處
01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卷4-6	公哲 述	天順5 (1461)	壽昌4(1098)戊寅勢高麗國大興王 寺奉宣雕造 天順5年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江田俊雄	松廣寺 (보207호)
02	大般涅槃經義記圓旨抄 卷13-14	晉空 述	天順5 (1461)	天順5年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江田俊雄	松廣寺舊藏 海印寺木板
03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 卷7-8	覺苑 述	天順6 (1462)	天順6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江田俊雄	松廣寺舊藏 海印寺木板
04	般若波羅密多心經疏 卷上-下	法藏 述	天順6 (1462)	大安9(1093)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 寺奉宣雕造 天順6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남권희	청주고인쇄 박물관
05	法華玄論, 卷3-4	吉藏 述	天順5 (1461)	乾統2壬午(1102)歲高麗國大興王 寺奉宣雕造 天順5年辛巳(1461)歲朝鮮國刊經 都監奉教重修 ⁷⁾	천혜봉	개인
06	菩提達磨四行論	達摩 述	天順8 (1464)	天順8年甲申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於南原府重修	김두중	天理大
07	詳校定本慈悲道場懺法 卷1-10	諸法師	天順6 (1462)	1447年刻 天順6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송일기	개인 아단 보림사
08	石門洪覺範林間錄 卷上,下	覺範 撰	成化4 (1468)	成化4年戊子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於尙州牧重修	神尾弼春	국립도서관
09	禪門三家帖頌集 卷1-6	雪竇 撰	天順8 (1464)	天順8年甲申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박상국	기림사
10	廬山集 卷8-10	慧遠 集	天順7 (1463)	天順7年癸未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神尾弼春	神尾弼春
11	五杉練若新學備用 卷上,中,下	應之 述	天順6 (1462)	天順6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江田俊雄	駒澤大學
12	圓覺經大疏釋義鈔 卷13	宗密 述	天順6 (1462)	大安9(1093)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 寺奉宣雕造 天順6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송일기	松廣寺 (보1468)
13	圓宗文類集解 卷中	廓心 解	成化4 (1468)	成化4年戊子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於開城府重修	김두중	天理大 今西文庫
14	慈受和尚廣錄 卷下	普紹 編	成化2 (1466)	鉦板於西京己丑(1289)冬至繡衣 李仁琪記 成化2年丙戌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김두중	고대만송
15	地藏菩薩本願經	法燈 譯	天順6 (1462)	天順6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김두중	駒澤大學

위의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문본 50여 종 가운데 권말의 간기에 ‘重修’라는 용어가 기재된 판본은 모두 15종으로 파악되었다. 중수본 15종은 『임간록』과 『집해』, 『사행론』 등 3종이 개성, 상주, 남원 지방에서 각각 중수되었고 그 나머지 12종은 중앙에서 중수되었다. 이 15종을 편의상 분류해보면, 불경류 지장경 1종(15), 장소류 6종(1, 2, 3, 4, 5, 12), 의례류 2종(7, 11), 문집류 4종(8, 10, 13, 14), 선종류 2종(6, 9)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면 장소류가 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중수시기로 구분해 보면, 간경도감이 설치된 1461년(세조 7, 天順 5)에 3종(1, 2, 5), 1462년 6종(3, 4, 7, 11, 12, 15), 1463년 1종(10), 1464년 2종(6, 9), 1466년(成化 2) 1종(14), 1468년 2종(8, 13)으로 세분된다. 간경도감이 1461년 6월에 설치된 사실을 감안해 보면, 초기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전체의 절반 이상인 9종(60%)이 간행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에 이미 파악된 책판의 일부만을 수리[重修]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 과정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간경도감본 전체 50여 종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파악해 보면 이 시기 동안 더 많은 종수가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감 설치 초기에 이처럼 신속하게 간행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원인은 간경도감 설치 이전에 이미 조정에서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부를 중심으로 주요 사찰에 수장하고 있던 경판의 소재 파악 작업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초기 태종에서 세조 연간 사이에 일본은 우리의 고려대장경을 수차 청구해 왔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대장경을 찍어 내는 經板 전체를 보내 달라고 협박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태종 때부터 사찰에 수장되어 있는 경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태종실록』[태종 14년 갑오(1414) 7월 11일(임오)]의 기사를 보면 임금 태종이 종신들과 논의하는 내용에서 그 일면을 알 수가 있다.

상기 『태종실록』에 보면,

「대장경을 일본국에 보내고, 『大般若經』을 圭籌에게 내려 주었다. 처음에 임금이 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일본 국왕이 대장경을 구하니, 經板을 보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 經板이 적지 않으니 보내 준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京外에 경판의 숫자를 헤아려서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이제 일본에서 대장경을 청하니, 이미 이루어진 물건을 다 보내도록 하는 것은 편안치 않다. 만약 경판을 보낸다면 뒤에 비록 다시 청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말이 있다하니, 淸城君 鄭擢이 일본 사신이 왕래하는 것은 佛法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 만약 경판을 보낸다면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하였다.」

(送大藏經于日本國, 賜大般若經于圭籌. 初, 上謂代言等曰: 日本國王求大藏經, 贈送經板何如. 對曰: 我國經板不少, 送之何害. 上曰: 京外經板, 計數以聞. 上又曰: 今日本請大藏經, 已成之物盡令入送未便. 若送板子, 則後雖復請, 有言可執. 淸城君 鄭擢曰: 日本使往來, 爲求佛法耳. 若送板子, 則恐不復來也.)

- 7)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법화현론』은 천해봉 선생이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 권3 말에 수록되어 있는 중수기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범우사, 2012. 246-248). 필자가 동일한 실물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경도감 중수기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이 글에서 처음으로 소개한다.

위 실록의 내용을 보면 태종이 대장경판을 일본에 주어 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니 신하들 또한 일본국에 준들 무엇이 해롭겠냐고 동조하는 모양새이다. 그러자 태종은 먼저 전국에 있는 경판의 수량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대장경의 경판을 일본에 보내는 문제는 이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1424년(세종 6) 2월에 가서 다른 경판을 보내는 것으로 결말을 보았다.⁸⁾ 그리고 경판의 수량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문제는 1425년 다시금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세종실록』[세종 7년(1425) 4월 1일]에

“예조에서 일본 국왕과 여러 섬의 領主들이 불경의 판본을 구하는 자가 꽤 많은데, 요즈음 서울과 지방의 폐사와 승려가 없는 절간에 소장되어 있는 금은자사경과 목판본이나 필사본 경전과 여러 경판을 무뢰배들이 훔쳐 가거나 파손하여 앞으로 청하는 것을 들어주기에 어렵겠다고 보고하자, 서울 안에는 禪敎 양종에게 시키고, 외방에는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두루 조사하고 모아서 승려들이 모여 있는 절에 옮겨 두게 하고, 그리고 현재 각 절에 있는 여러 경전과 경판의 수량을 명백하게 치부[目録]로 인계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니 그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禮曹啓: 日本國王及諸島土主, 求佛經板者頗多. 今京外革去寺社及無僧寺社所藏金銀字經, 印寫諸經及諸經板子, 無識之徒, 或偷取或破毀, 將來塞請爲難. 京中則令禪敎兩宗, 外方則令所在官守令, 考察收頓, 移置僧人聚居寺社, 其各寺見在諸經及板數, 明白置簿傳掌, 具錄以聞. 從之)

이와 같이 오랫동안 주요 사찰에 방치해 두었던 경판의 수량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관하여 보존하는 방안이 태종 때부터 논의되어 세종 7년에 구체적 보존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조정에서 전국 주요 사찰에 수장되어 있는 경판의 상황을 이미 경판목록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곧 이어 불교전적을 간행토록 지시하자 인경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절반이 넘는 다량을 중수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신속하게 인경작업을 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현존 중수본을 대상으로 중수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이때 일본에 보낸 경판은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서 수입해 온 『注華嚴經』(원명: 大方廣佛華嚴經疏)과 고려 말에 판각한 『密敎大藏』의 경판이다. 세종은 1423년 10월 25일에 개성 유후사에게 명하여 당시 개성의金沙寺에 보존되어 있던 진언대장경과 靈通寺에 보존되어 있던 주화엄경의 경판을 선박으로 운송해 오도록 하여, 그 이듬해 1424년 2월 7일에 일본 회례사 朴安臣의 감독 아래 출발하여 일본의 相國寺에 이송한 사실이 『세종실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중 『注華嚴經板』은 대각화상이 송나라 조정에 청하여 바다를 건너 들여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세종 6년 갑진(1424) 12월 17일(무오)).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 의뢰하여 판각 수입해 온 주화엄경판에 대해서는 蘇軾의 상주문에 자세히 보이고 있는데, 당시 宋商 徐戩이 銀 3천 냡을 받고 2900餘板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당시 고려에서 지불한 은 3천 냡의 현재적 가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690년 후인 조선시대 정조 때 1777년 왕명으로 5020권에 달하는 『古今圖書集成』 한 질을 구입하는데 은 2150냥을 지불한 사례가 있는데[정조실록 1년 정유(1777) 2월 24일(경신)]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시 의천이 지불한 판각비용과 경판 2900판은 규모로 보아 주화엄경판 1종만은 아닐 듯싶다. 왜냐하면 『화엄경소』는 전체 권수가 120권에 불과하여 『도서집성』에 비해 매우 작은 분량이며, 현존본 50여 권을 조사해 보니 1권 당 대략 25-26장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전권 120×26으로 합산하고 이를 양면에 판각하되 2로 나누면 1560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나머지 1300판 이상은 다른 불전의 경판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불전은 판식과 서체 상의 특징이 가장 흡사한 『大方廣圓覺略疏注經』(宗密 述, 4卷)과 『首楞嚴義疏注經』(子璿 述, 10卷) 등이 우선 지목된다.

3.2 중수본의 보판 사실

간경도감에서 중수 간행된 중수본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실물 자료에서는 과연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위에 제시한 중수본 15종에는 현재 그 소재 파악이 곤란한 자료가 1종이 있으며, 또한 한 동안 순천 송광사에 소장되었던 舊藏本 2종은 권수와 권말의 일부 사진 자료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판본들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중수본에서 중수된 부분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3> 현존 중수본의 重修 사실

구분	書名	전체 권수	現存本	張數	重修 事實	비고
장소류	金剛般若經疏開玄鈔	6	卷4-6	127(46+40+41)	卷4: 張14(일부 補刻)	
	大般涅槃經義記圓旨抄	14	卷13-14	88(44+44)	권13: 장44(卷末題 補刻)	松廣寺舊藏
	法華玄論	10	卷3-4	41(18+23)	권3: 장1卷首題(補刻)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	10	卷7-8	79(39+40)	권7: 장1,18(補板)	松廣寺舊藏
	般若波羅密多心經疏	2	卷1-2	9	-	
	圓覺經大疏釋義鈔	13	卷13	49	권13: 장32(補板)	
문집류	石門洪覺範林間錄	2	卷1-2	111(53+58)	권상: 장1, 3-14, 16-18, 21, 26-30, 35-39, 44-45(補板) 권하: 장3-5, 8, 12, 15, 18-27, 32, 33, 48, 49, 52, 53	동국대본 題簽
	廬山集	10	卷8-10	-	-	소재 미상
	慈受和尚廣錄	2	卷下	64	3, 4, 6, 16, 18, 38, 57, 58(補板)5, 52(補刻)	己丑(1289) 李仁琪 記
	圓宗文類集解	3	卷中	52	補板 다수	
의례류	詳校定本慈悲道場懺法	10	卷1-3, 5-6 卷4-6, 卷9-10	121(30+28+29+ 26+24+23, 27+28)	施主秩 삭제	1447年開板
	五杉練若新學備用	3	卷3	55(3+28+24)	卷下: 장13, 14, 19, 20(補板)	駒澤大사이트
선종류	菩提達磨四行論	不分	全卷	22	張22(補板)외 다수	범어사본과 상이함
	禪門三家站頌集	6	卷1-6	270(43+44+46+ 48+46+43)	권2: 장173, 권3: 장13, 권6: 장8, 11(補板)	丙午(1246) 天英跋
불경류	地藏菩薩本願經	3	卷1-3	46(18+16+12)	發願文	1447年開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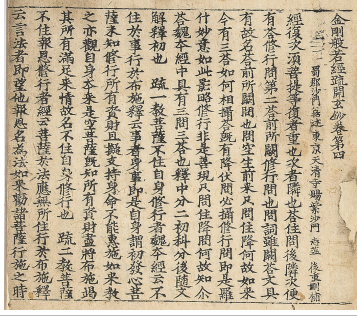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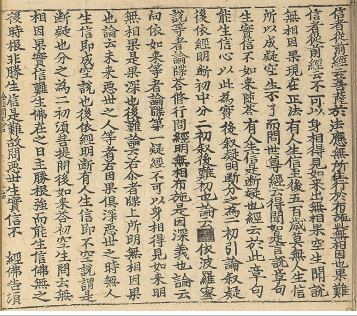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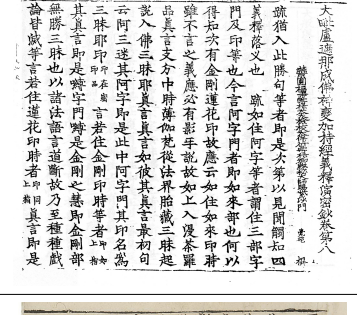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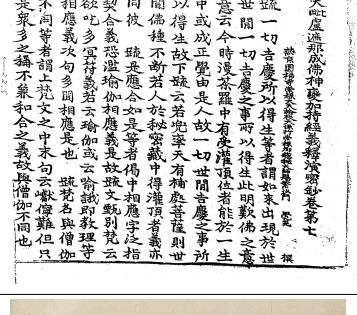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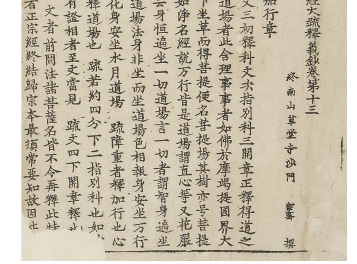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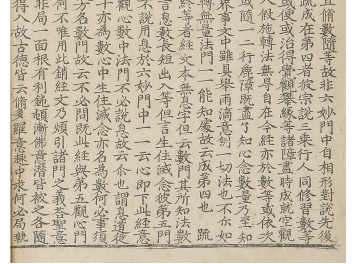
(補板: 한 면 전체를 판각 / 補刻: 한 면 중 일부만 판각)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래의 전체 권수와 현존본의 권수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려 후기에 판각된 경전류나 문집류보다 고려 11세기 말기에 판각된 교장본에서 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461년에 증수한 『大般涅槃經義記圓旨抄』는 전체 권수가 14권인데, 현존본은 권13-14의 2권에 불과하다. 또한 1462년에 증수한 『圓覺經大疏釋義鈔』는 전체 권수가 13권인데, 현존본은 권13의 1권만 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잔존 권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때문에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증수하였을 당시에 고려 원각판은 과연 전량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⁹⁾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고 증수본의 세부 증수 사실을 살펴보면, 먼저 간경도감 重修記는 전체적으로 새로 새겨서 象嵌하는 방법으로 埋木하였다.¹⁰⁾ 증수기는 각 권마다 매목되어 있으나, 원각판의 권말제 다음에 이를 새길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는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소류는 전체 15종 중 6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반야심경소』 1종은 전체 분량이 9장에 불과하여 크게 증수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권말의 증수기만 매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전본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3종의 경우 『개현초』는 권4 장14에 일부만 보각되어 있고, 『법화현론』은 권3의 장1에 보판이 되어 있으며, 『석의초』는 권13의 장32가 보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5종 중 『원지초』와 『연밀초』 2종은 일제강점기에 순천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그 소재가 미상이라 전모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보고서에 권수와 권말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일부나마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지초』 권13의 권말제가 보각되었고, 『연밀초』 권7의 장1과 장18 등 2장이 보판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증수사실로 보아 증수본 장소류의 경우 많아야 2장 정도 분량만이 보판 증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실제 증수한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서영 1>은 장소류 가운데 대표적 증수 사례를 선별하여 사진으로 제시한 것이다.

-
- 9) 당시 간경도감에서 전체를 鑿刻했다면, 현재 더 많은 권수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전권은 번각하지 않고 당시까지 잔존한 원판만을 증수하여 後印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권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도감 설치 초기에 다종의 증수본이 신속하게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 10) 이와 같이 간기를 埋木하는 사례는 고려 재조대장경 조조 시에 87종에 이를 정도로 자주 발생하였으나, 인경본에서는 이를 쉽사리 식별할 수 없고 반드시 목판 실물 자료를 확인해야만 한다(박용진, “불교 고문헌의 書誌 調査의 諸問題,” 『中央史論』 46집(2017), 30-32). 이에 비해 간경도감 증수본의 경우는 원간본의 서체와 확연하게 구분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감식할 수 있다.

書名	원간판	중수부분	위치
金剛般若經疏開玄鈔			補刻 권4-장14
大毘盧遮那成佛神變 加持經義釋演密鈔			補板 권7-장1
圓覺經大疏釋義鈔			補板 권13-장32

<書影 1> 장소류의 보각 및 보판 부분

문집류 4종 중 『여산집』은 神尾弼春이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나, 현재는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중수 사실은 파악할 수 없고 중수 간기만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간록』은 상하 2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수 시에 後集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상에는 장1, 3-14, 16-18, 21, 26-30, 35-39, 44-45 등 비교적 많은 29장 분량이 補板되어 있고 권하도 22장이 보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¹⁾ 『집해』는 본래 의천의 편저로 후에 그의 제자 廓心이 집해한 장소의

11) 현재 목판이 유전되고 있어 여러 번 후쇄하여 후쇄본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데, 동국대본은 간경도감에서 장황하면서 표지에 부친 題簽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지질이 藁精紙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468년 인출본으로 판단된다.

성격을 지닌 문헌이나 『교장총록』에 미수되어 있어 편의상 문집류에 분류하였다. 이 책은 현재 천리대 今西문고에 소장되어 있어 원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복사본을 이용하여 검토하여 분명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여러 장에서 보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¹²⁾ 그리고 『廣錄』은 이인기의 발문을 통해 1289년 개판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간경도감에서는 적어도 8장을 보판하고 2장을 보각하여 후쇄하였다.

의례류는 2종으로 『참법』의 경우는 본문 중에는 보각이나 보판된 부분은 없으나 권말에 원각판의 발원문이 수록되어 있어 중수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備用』의 경우는 하권만 일본 駒澤대에 현전하고 있는데, 원문정보서비스를 통해 그 중 4장 분량이 보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종류의 경우 『사행론』은 범어사와 천리대에 소장된 2종의 판본이 알려져 있는데, 계선의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된다. 범어사본은 계선이 없고 보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천리대본은 계선이 있고 권말에 보판이 들어 있으며 중수기가 새겨져 있어 선행본으로 보인다. 『염송집』은 전 6권이 현전하고 있는데, 권2의 장173, 권3의 장13, 권6의 장8, 11 등 4장이 보판으로 확인된다. 전체 270장 분량에서 보판은 4장에 불과하여 1246년에 판각된 이후 1464년 중수시기까지 원각판 전량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불경류의 중수본은 『지장경』 1종이다. 현재 인출시기가 다른 동일한 판본 2종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 1462년 간경도감 중수기가 있는 판본은 고려대 경화문고와 일본의 구택대 江田문고와 천리대 今西문고 소장본이 있다. 이와 동일한 원간본은 현재 보물 933호로 지정된 판본으로 권말 말미에 중수 간기가 없어 중수본과 구분된다.¹³⁾

이상의 중수 사실로 보아 조선 세조 연간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판본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 초기에 판각된 원각판을 부분적으로 보각하거나 보판하여 다시 인출한 후인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2) 15종의 중수본 중 『임간록』, 『집해』, 『사행론』 등 3종은 중앙이 아닌 개성부, 상주목, 남원부에서 중수된 판본에 해당되는데, 다른 판본에 비해 補板할 분량이 많았던 관계로 지방에서 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에는 간경도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 판각한 판본(重彫本)은 주로 상주나 전주 등지의 여러 지방에서 분담 개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수기에는 재조본과는 달리 ‘分司’라는 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를 고려의 대장도감의 사례를 근거로 분사도감으로 보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본래 府牧에 출판기능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분사의 성격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13) 원간본에는 다음과 같은 발원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고려대 중수본에는 다음의 발원문이 삭제되어 있다. “發願/至心開板地藏經 地藏菩薩神通力 掌中放光如意珠/普照地獄皆成佛 六環宝杖微妙聲 無間入人皆解脫/久遠劫中無窮願 衆生度盡訂菩提 以此廣大微妙願/當訂我心徹見知/太宗恭貞[定]大王仙駕坐宝蓮臺度衆生/元敬王大后仙駕方成佛/昭憲王后仙駕九品臺上度人天/主上殿下宝位天長/世子邸下壽無疆/永膺大君兩位壽無過”. 이 발원문의 끝에 세종의 막내아들인 永膺大君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간본은 영응대군이 君號를 받은 세종 29년(1447)에서 세종이 붕어한 32년(1450) 사이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駒澤大 중수본에는 ‘正統12年’의 원간기가 수록되어 있어 1447년에 판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결 언

이상에서 간경도감에서 중수 간행된 중수본을 대상으로 연구자 사이의 견해를 검토하고 실물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간경도감본 간기에는 일반적으로 ‘雕造’라는 용어 외에도 ‘重修’라는 용어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조는 “목판에 새긴다”는 개념이며 중수는 “이미 새겨 놓은 목판을 수리한다”는 의미로 두 용어 사이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重修’의 사전적 의미는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침”이란 해설처럼, 원래 새겨 놓은 경판을 후대에 부분적으로 다시 수리[보각 또는 보판]하여 인출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연구자 사이에 이해가 달라 초기의 일부 학자는 이를 원각판을 수리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후대의 일부 학자는 원본을 번각 또는 복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변곡점은 조명기의 ‘後印本說’에서 천해봉의 ‘飜刻本說’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천해봉의 번각본설을 의식 없이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이러한 상반된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간경도감 한문본 중에서 ‘重修’라는 간기가 있는 판본을 조사해 보니 모두 15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15종 가운데 소재 파악이 가능한 14종을 대상으로 중수 사실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보각과 보판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넷째, 간경도감에서는 설치 초기(1461-1462년)에 전체 15종 중 60%가 넘는 9종이 집중적으로 중수 간행된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감 설치 이전에 이미 조정에서 주요 사찰에 수장되어 있는 경판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섯째, 간경도감 중수본 중에 고려 초기 대각국사 의천의 주관으로 판각한 장소류와 고려 후기 사찰에서 판각한 문집류와 선종류 불서에서는 주로 보판 양상이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조선 초기에 판각한 일부 불서류에서는 오히려 원각판에 새겨져 있는 발원문이나 시주질만을 삭제하고 인출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전하는 간경도감 한문본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해 보면, 중수 간기가 없을 뿐 실제로 중수본에 해당하는 판본이 20종 이상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조명기 선생의 교시와 같이 세조 연간까지는 장소류를 포함하여 고려 원각판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현재 국내에 전존하는 장소류는 비록 세조 때 후인한 판본에 해당되나 실은 원간본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후속작업으로 간경도감의 판본적 성격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송일기. 『順天 松廣寺 聖寶博物館 佛書展示 圖錄』. 태학사, 2004.
-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朝鮮古蹟研究會, 1938년.
- 趙明基.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서울: 東國大學校 白性郁博士頌壽記念事業委員會, 1959.
-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동국문화사, 1964.
- 전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과주: 범우사, 2012.
- 江田俊雄.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朝鮮之圖書館』 5-5(1936. 10).
- 大屋徳城. “朝鮮海印寺經板考.” 『東洋學報』 15-3(1926).
- 朴奉石. “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て.” 『朝鮮之圖書館』 第3卷 第6號(1934).
- 神尾弼春. “朝鮮國刊經都監の刊行佛典.” 『東方文化雜考』. 長春: 滿洲新聞社, 1943.
- 千惠鳳. “李朝前期 佛書板本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2-11(1965. 1).
- 崔凡述. “海印寺寺刊鏤板目錄.” 『東方學志』 11(1970).